

깨끗한 고창의 투명한 자랑거리

전라북도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창을 어떤 고장이라 설명하면 좋을까? 사시사철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선운사, 가을이면 전국의 눈길을 끄는 꽃무릇, 전국 최고를 뽑내는 복분자주와 풍천장어, 고창수박 등등. 고창의 자랑거리는 한 손으로 꼽기에 너무 많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깨끗한 고창을 만들고자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구성원들이 바로 그들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가 펼칩니다

현재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관리계와 상수도계, 하수도계로 나뉘어 있다. 관리계에서는 가정급수시설과 누수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상수도계에서는 지방상수도시설 확충에 애를 쓰고 있는 한편, 하수도계에서는 2008년까지 7곳의 하수처리장을 설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중 관리계에서 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은 바로 누수업무. 누수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휴일에도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란다. 특히 누수탐사기를 이용해 가정 내 누수까지 찾아내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다는 자랑. 자가 정비가 주를 이루던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고 한다. 하수도계의 주사업인 하수처리장 건립은 이미 두 곳의 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데, 무인화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을 간편화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는 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주민들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들이 앞장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말처리장으로의 견학을 주선하는 등 구성원 모두가 애를 썼다고 한다. 그 덕분에 현재는 타 시군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훌륭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

상수도계에서 관로매설에 한창이었다. 현재 64%의 상수도 보급률을 2011년까지 85%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2008년경에는 사업의 대부분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배수지를 무인화하고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일에도 적잖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마을상수도의 경우 주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자체 청소가 실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직원들이 일일이 마을을 돌며 상수도를 청소하고 있다는 전언.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계의 특징이라면 자체 상수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98년부터 부안댐으로부터 광역상수도를 수주하여 주민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생산 단가가 자체 정수장이 있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면이 없지 않다. 정수 대금 결정권이 고창군에 있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 원수 수질이 1급인, 전국에서 좋기로 소문난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지출할 곳이 그만큼 많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곳 역시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다.

“당장 내년부터 각종 시설을 무인화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약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재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중복구간에서는 사업을 병행, 시행하고 있지요. 이로써 아낄 수 있는 예산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김은기 소장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고창군을 안팎으로 살찌울 기반이 될 것이라 소개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돈이 오지게 되는 곳입니다. 작게는 수도요금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비, 상하수도 사업에까지 모든 것이 돈과 관제되는 것들 뿐이지요. 때문에 직원 개개인에게 청렴한 공직자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니 말입니다.”

김은기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 더욱 깨끗해지겠습니다

고창군은 '공직부패제로(Zero)' 자치단체로 선정된, 자타가 공인하는 청렴도 우수기관이다. 덕분에 올해는 청렴추진도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됐을 정도라고 한다. 이강수 고창군수의 노력 덕분에 이와 같은 결실을 맺었다고 설명하던 김은기 소장은,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그 어느 곳보다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항상 돈이 오가게 되는 곳입니다. 작게는 수도요금부터 상수도 급수공사비, 상하수도 사업에까지 모든 것이 돈과 관계되는 것들 뿐이지요. 때문에 직원 개개인에게 청렴한 공직자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남다르니 말입니다.”

하지만 김은기 소장이 강조하는 것은 비단 청렴뿐만은 아니다. 민원인을 대할 때나 전화를 받을 때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아무개입니다” 라는 인사말을 붙이도록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사업소의 문턱을 낮추는 데에도 적잖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고창군은 하루빨리 런던 해양투기협약 발효에 따른 관련 법령이 제정되길 바라고 있다. 런던 해양투기협약에 따라 이제 더 이상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바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슬러지 퇴비화 사업을 야심차게 준비해 왔다. 덕분에 다른 자치단체 못지않은 퇴비화 능력을 갖추게 됐지만 아직 농림부로부터 퇴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슬러지로 만든 퇴비의 경우 그 효과가 좋아 이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받아가고 싶어하지요. 그런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는 가로수 등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식허가가 나서 지역 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모 하수도계장은 주민친화와 슬러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목전에 두고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슬쩍 내비쳤다. 사업소의 존재이유를 구성원 각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는 대목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창에는 유무형의 자랑할 것들이 무궁무진하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를 두 가지(판소리, 고인돌)나 갖고 있는 풍요로움의 고장, 봄부터 가을까지 만발하는 꽃 속에서 맑게 빛나는 청정 한 고장, 이러한 고창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인해 더욱 깨끗해질 날을 기대해 본다. ☺



① 언제나 모든 것을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② 수시로 열리는 회의에서는 항상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된다 ③ 선운 아쿠아 하우스에는 탐방객을 위한 현황표 및 안내도가 잘 구비되어 있다

“이제 아쿠아 하우스라 불러주세요”

꽃무릇, 일명 삼사화로 불리는 가을꽃이 한창인 선운사엘 가면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름 하나를 발견하게 된다. 아쿠아 하우스가 바로 그것. 언뜻 듣기로는 흡사 수족관처럼 들리는 이 이름은,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의 새로운 명칭이다.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름이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적잖은 거부감을 불러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름부터 새롭고 산뜻하게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고 내부 공모를 통해 ‘아쿠아 하우스’ 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꾼 게 작년이었는데, 올해 초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의 새로운 명칭을 공모한다는 지침이 내려오더군요. 저희가 중앙보다 1년 앞서간 셈이지요.”

예전에는 선운사 초입에 수없이 들어서 있는 각종 업소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정화조를 거쳐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었다고 한다. 때문에 절경을 자랑하는 선운사의 명성에 버금가는 악취가 심심찮게 발생했던 것도 사실. 그때는 그저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며 환하게 웃는 김은기 소장의 얼굴이 유난히 밝았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고창을 찾는 관광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동안 길이 불편했을 뿐이지 볼 것과 즐길 것으로 치자면 우리 고창을 따라갈 곳이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비록 그 이름은 아쿠아 하우스로 바뀌어도 그 안은 여전히 하수종말처리장인 것은 당연한 일. 즉, 그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대한 상인들의 거부감도 적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모두 지하에 시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 악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아래층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말이지요.”

강성모 하수계장의 말처럼 아쿠아 하우스의 내부에서는 지하로 들어서기 전까지 그 어떤 악취도 감지할 수 없었다.

현재 아쿠아 하우스에서 정화를 마친 물이 머무는 저수조에는 금붕어들이 살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견학과 체험을 온 주민과 학생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몇 마리의 금붕어가 그동안 하수종말처리장이 갖고 있던 ‘오염 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환경 시설’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는 셈이었다.

현재 고창군에서는 가을을 맞아 수산물 축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관광객 유치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① 선운 아쿠아 하우스의 입구에 서 있는 비석을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떠올릴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② 대부분의 처리시설이 지표보다 낮은 곳에 있어 악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③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해 상주 인원은 줄이고 효율은 높이고 있다

관광객들이 고창군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청정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연일 것이다. 고창군의 특산물 대부분이 자연에서부터 그대로 얻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는 고창군의 공직자들, 특히 그 중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의 구성원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는 덮어놓아도 좋지 않을까. 낯선 곳을 찾은 사람들에게 가장 깨끗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려 했던 첫 결실인 아쿠아 하우스가 이제 지역의 명물로 떠올랐으니 말이다. ☺

